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한 측정 요소와 평가를 위한 요소들의 성숙모델

심군보, 최홍식, 정승렬
sgboo@naver.com, hschoi@kookmin.ac.kr, srjeong@kookmin.ac.kr

(주)RichLand
333-1 Doksangong Kumchunku
Seoul, Korea
82-2-895-6900

국민대학교 BIT대학원 교수
861-1 서울 성북구 정능동
82-2-910-4567, 4568

Key Word: ITA, TRM, 성숙모델, EA

2. 본문

오늘날 디지털화 정보화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에 정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거 Strand-alone의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 Open System 환경을 수용하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보 교류의 차원에서는 텍스트 위주의 교류에서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정보의 욕구가 커지고, 이에 따르는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 반영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시스템이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전략적 자산이자 도구로 인식상의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 환경은 자동화, 재생산, 재사용의 발전이 애플리케이션 중심이다. 또한, Open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벤더 중심의 폐쇄적인 애플리케이션이 타 벤더와 시스템 통합에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간의 호환 운용, 자료 교환, 비즈니스 영역 확장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SI업체를 중심으로 임기응변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접근이 없고, 비즈니스 목표를 간과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2 Layer 혹은 3 Layer로 할 것인가?’, ‘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형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떤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구성하나?’, ‘플랫폼은 UNIX, NT, Linux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개발 툴과 미들웨어를 쓸 것인가?’, ‘네트워크와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어떤 웹 툴을 사용할 것인가?’, ‘적당한 용량은?’, ‘적당한 반응 시간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안의 문제는?’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대세를 이룰 것이다. 전사적 아키텍처는 비즈니스형태를 고려하여 제반 정보기술, 이를 테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생산성, 수익성, Time-to-Market의 수준을 높여 준다. 전사적 아키텍처는 결국 투자수익율(ROI)과 자산수익율(ROA)을 높여준다. 이러한 전사적 아키텍처의 성능향상에 측정 기준이 되는 요소들로는 변화(Change), 복잡성 관리(Complex management),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통합성(Integration), 이식성(Portability), 재활용성(Reusability), 정렬(Alignment), 적응성(Adaptation), 연속성(Seamlessness), 유연성

(Flexibility), 품질(Quality)등을 들 수 있다.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사적 아키텍처의 성능향상 요소로서의 측정 방향과 수준을 알아본다. 또한 상호운용성, 이식성, 통합성, 정렬에 대하여 조직에서 각각의 수준에 대한 성숙모델을 살펴보고, 조직 내에서 전사적 아키텍처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평가 모델을 소개할 것이다. 상호운용성 모델로는 LISI(Level of Information System Interoperability)모델과 COE I&RTS(Common Operating Environment Integration & Runtime Specification)모델로 통합성과 이식성의 성숙도를 살펴보고, 정렬성숙 모델로 정렬의 성숙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측정 요소에 의하여 측정이 되고 조직에 알맞은 성숙모델이 정해지면 조직 내의 전사적 아키텍처의 관리를 통하여 좀더 성숙한 전사적 아키텍처를 이루어 정보기술 관리(ITM: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차원의 아키텍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현재의 운용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것이 되며, 또한 외부적인 기술 환경 및 변화된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진 정보기술 관리를 할 수 있다.